

대학별 성평등 문화조성 실천 계획수립 유도 및 성평등 문화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수행과제명 ... 성평등 실천 국민 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Ⅲ):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안 상 수 연구위원

☎ Tel: 02-3156-7188, ✉ e-mail: ahnss@kwidmail.re.kr

요 약

대학내 성별 불균형 해소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3년 단위의 대학별 Action Plan 수립과 구체적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학 내 성평등 문화의 진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과 도입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 배경 및 문제점

2011년 대학 및 대학원생 약 253만 명 중 여학생의 비율은 42.1%에 해당되는 106만 명임. 이는 남녀 간 출생 성비를 고려하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성비의 불균형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대학 내 각종 활동이나 역할 수행, 여교수 비율 등 구체적인 영역별로 살펴 본다면 남녀

간의 커다란 괴리가 있어서 성별간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 성별불균형이 여러 형태로 존재함에도 대학생 구성 성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시 통계에만 매몰되어, 구체적인 세부 통계들에서 불균형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고,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이 현주소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남녀 대학생들의 ‘성평등의식’, ‘수업, 동아리, 학과 활동 참여’, ‘역할배분’, ‘대학내 성평등 문화’, ‘취업장벽’,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내 성별 불균형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이번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 실천 실태 조사 결과, 첫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성평등의식은 2010년 직장인 조사의 20대 직장인에 비해서 낮았고, 2008년 양성평등국민의식 조사의 20대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 둘째, 대학내 활동 참여 양상을 보면, 많은 활동에서 남학생들의 참여가 여학생들의 참여보다 앞서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는 일부 활동들에서만 여학생들의 참여가 남학생보다 앞서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대학내 활동 참여에서 성별분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셋째, 전체 여학생의 26.7%가 지난 1년 동안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넷째,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취업가능성을 낮게 지각하는 가운데 취업스트레스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교수의 비율이 높거나 성평등한 대학문화를 가진 대학에서는 대학 내 활동 참여의 불균형이나 성별분리가 다소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음. 또한 성평등 문화를 가진 대학의 재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대학의 재학생들보다 성평등의식이 높았음. 한편 대학문

화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큰 대학의 재학생들은 취업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취업스트레스와 함께 취업준비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제언

제안1) 대학별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실천계획 수립 유도

현재 각 대학들은 대학내 성별 불평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대학내 성별 불균형이 큰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아래 이를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음. 현재 영국의 각 대학들은 2006년에 제정된 평등법(The Equality Act)을 근거로 성평등제도(Gender Equality Scheme)라는 명칭의 대학내 성평등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매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본부의 주도 아래 목표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성평등 실천 계획에는 학생, 교수, 대학 내 유관 업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수의 지원, 복지, 대표성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다양성 위원회 및 자문단을 통해 관련 통계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을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여교수 비율의 불균형을 해소’, ‘학문분야별 성별비율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각종 위원회 및 대학 내 직책에 대한 여교수 참여율 제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공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게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점검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3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제도가 실행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대학의 경우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2조 1항 1호의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에 근거하여, 대학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학을 대상으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안2) 대학의 성평등 문화 수준을 가늠할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본 연구 결과, 성평등한 대학 문화가 성평등 실천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음. 그러나 현재 대학의 성평등의 진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마땅한 지표가 부재하고, 각 대학들은 대학 내 양성평등 환경 조성의 수준을 점진할만 한 준거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오차노미즈대학은 오차데 인덱스(Ochadai index)를 개발하여 일본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보급하고, 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음. 오차데 인덱스에는 ‘여성연구자 지원조직체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시스템 도입’, ‘여교수 및 여성 연구자 채용 목표치 연구분야별 설정’, ‘연구분야별 및 직급별 여성비율 파악’ 등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근무체제 정비 부문에는 ‘정시 퇴근’, ‘회의 시간(5시 이후 회의개최 또는 연장 불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전 교직원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조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육아보육지원 부문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수유실, 다목적 화장실 설치’, ‘양육지원용 학내 숙박시설’ 여부 등이 있으며, 연구교육지원 부문에는 ‘육아기간 유연근무제 도입 정도’, ‘학부, 대학원생 대상 육아지원 장학금제도 도입’, ‘여성연구자를 위한 멘토제도 도입’, ‘육아 여성 연구자 경력관리 지원제도(세미나, 국제활동)’ 등의 지표가 있으며, 정보지원 부문에는 ‘여성 연구자 지원을 위한 타 캠퍼스, 기관, 지역 연대 정보 제공’, ‘여성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고, 의식개선 부문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활동’, ‘남녀 공동 참여를 위한 의식 개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리직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의식

개선' 등의 지표 항목을 두어, 이들 항목에 대한 도입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대학내 성평등문화의 진전 정도에 관한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지표 항목은 국내의 여성 정책 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들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여성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국내 각 대학의 정책 담당자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지표 항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 성평등 향상에 관한 거시적 목표는 설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활동 및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명목적인 사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대학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목표에 입각한 대학내 성별불균형 해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점에서 대학별 실천계획 수립과 목표 달성 정도에 관한 모니터링, 진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도입이 대학내 성평등 향상에 좀 더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부처 : 국내 각 대학